



오늘의 날씨와 생활

6월 20일 목요일 음 5월 18일 (10월)

기상정보

구름 많음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맑다가 낮부터 구름많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20℃, 낮 최고기온은 25-26℃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1.0-1.5m로 일겠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제주, 오후. Rows show 0% precipitation probability and 20% cloud cover for Jeju, Gyeongju, and Seogwipo.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달뜨기. Rows show times for sunrise (05:24), sunset (19:47), moonrise (22:12), and moonset (07:44).

Table with 2 columns: 내일, 모레. Rows show weather forecasts for tomorrow (구름 많음, 20/26℃) and the day after (구름 많음, 20/25℃).

Table with 2 columns: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Rows show warnings for food poisoning and high UV index.

월드뉴스

보잉, 추락사고 여파 딛고 대규모 수주

3월 참사 후 주문공백 해소

추락사고 여파에 허덕이던 미국의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이 대규모 수주로 활로를 열었다.

미국 웨스트트러트저널(WSJ)에 따르면 보잉은 1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파리 에어쇼에서 브리티시항공 등의 지주회사인 IAG에 보잉 737 맥스 8과 이보다 큰 737 맥스 10을 섞어서 사들이기로 했다.

보잉 737 맥스 8은 최근 추락사고를 낸 기종으로, 기체결합 조사 속에 운항이 금지된 항공기다.

인도네시아 라이온 에어가 운항하던 이 기종은 작년 10월 추락사고로 189명의 사망자를 낸 데 이어 올해 3월에도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으로 157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비슷한 참사를 냈다. 그러나 월리 월시 IAG 최고경영



추락사고 여파로 운항이 중단된 보잉 737맥스.

자(CEO)는 “미래를 볼 때 737 맥스는 훌륭한 항공기”라고 말했다.

보잉 737 조종사 출신인 월시 CEO는 추락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종전 자동항법체계와 개선된 체계를 자신이 직접 시험해봤다는 점을 이 같은 평가의 근거로 들었다.

WSJ은 보잉 737 맥스가 이번 가계약을 통해 3개월 전 운항이 중단된 이래 가장 큰 심인을 획득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IAG의 결정은 규제 당국이 보잉의 새 자동항법체계를 항공기를 직접 띄워 시험할 채비를 하는 시점에 나왔다.

목요일론



이 경 용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이중섭미술관이 2022년이면 개관한지 20년이 된다. 처음에는 서귀포와 연고가 미약한 이중섭미술관 설립에 많은 반대와 우려가 많았다. 그리고 10여년이 지난 지금 '이중섭'은 서귀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화자산이 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단지 문화자산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어우러지면서 관광객을 모으며 상권을 창출시킨 경제적 성과의 핵심 콘텐츠가 되었다.

놀랍게도 이중섭미술관은 매년 30만명 가까이 찾아오는 대한민국 미술관 중 국립현대미술관을 제외한 최고의

서귀포 이중섭미술관 20년과 경제성과

관람객 성과를 내는 미술관이 되었다. 또한 이중섭 미술관은 '작가의 거리', '지방 없는 미술관', '구)서귀포 관광극장' 등의 또 다른 사업들을 만들어내며, 미술로 시작한 서귀포의 작은 거리가 서귀포 시민과 전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문화의 거리로 변화되었다.

이중섭은 문화를 만들고 사람을 찾아오게 했으며, 지역민을 경제적으로 먹고살게 했다.

최근에는 이 같은 사례를 문화적 도시재생의 성과로 말하고 있으며,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스페인 빌바오시의 '구겐하임' 미술관 성공사례와 비견할 만하다.

이런 이중섭미술관이 곧 있으면, 20년의 개관을 바라본다. 그러나 정말 큰 문제가 이중섭으로 대표되는 서귀포시에 있다. 이중섭미술관이 지금까지처럼 지속적으로 시민과 국민 모두에게 사랑을 받고 축소되지 않

기 위한 필수사항이 있는 것이다.

첫 번째는 이중섭미술관에 없는 이중섭의 대표작품이다. 미술관이 크건 작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미술관 가치를 지속시키는 대표작품이다. 지금까지는 은지화 몇 점으로 어렵게 유지해왔지만, 앞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는 시설 개선이다. 지금의 이중섭미술관은 연간 30만 명의 관객을 받을 수 없으며, 시설도 극도로 노후화되어 있다. 앞으로를 위해 필요한 만큼의 시설 개선이 핵심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독자적인 관장과 조직이 갖추어져야 한다. 사실 이 부분은 충격적인 내용일 수도 있다. 연간 30만 명이 오는 미술관에 관장이 없다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과연 우리는 이중섭 미술관을 잘 운영하고 있는가?

지금까지는 어려운 시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만큼 한 것에 모두에게 경례와 박수를 보낼 수 있다. 그러나 문화가 지역경제의 핵심 콘텐츠이자 문화경쟁력이 도시성장의 주요 현안인 시점에서 이전과 같은 형태로 이중섭 미술관 20주년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

다행히 서귀포시 문화행정이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는 있다. 하지만 행정시 입장에서 가능한 부분이 아니다. 필요한 재정규모를 고려할 때 제주도정의 노력이 필수적이며, 중앙정부의 협조도 강구해야 한다. 이중섭미술관이 이제는 단순한 미술관이 아닌 지역경제와 서귀포를 대표하는 문화상징이기에 총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관객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이중섭미술관도 마찬가지며, 따라서 이에 맞는 준비와 계획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열린마당

공직부패 문제, 권당문화의 선진화 필요할 때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김 동 혁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

올해 초 '버닝썬 게이트'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다.

한 클럽에서의 단순 폭행 사건이 나 비호과가 되어 결국 유흥업소와 경찰과의 유착까지 밝혀지게 된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공직에 대한 인식을 한 층 더 낮은 방향으로 이끌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직무유기, 직권남용, 청탁 등 공직부패는 한국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대한민국의 부패인식지수는 180개국 중 45위, OECD 36개국 가운데 30위를 차지하여 부패정도가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부패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각종 법, 제도를 정비해왔음에도 공직부패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고 은 미 제주시 건입동주민센터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스트럭이 과세대상이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세액이며, 연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세액이 6월에 부과된다.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전기차 등 그 밖의 승용자동차는 연세액을 적용하며 승합자동차는 승차인원 및 규격, 화물·특수자동차는 적재정량을 기

준으로 부과되며, 3륜이하 소형자동차는 연세 연세액을 적용하여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가 있어도 ARS(1899-0341)를 통해 신용카드, 휴대폰소액결제, 즉시출금 중 선택해 언제나 납부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 인터넷뱅킹 납부도 가능하다. 그리고 현금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공과금센터를 통해 신용카드는 재산세과,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및 전 은행 CD/ATM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바쁜 생활 중에 잊어버리더라도 납기 내 납부가 가능하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제도가 있으니 자신에게 편리한 방법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6월에는 자동차세의 연납(선납) 신청이 가능하다. 1월이나 3월에 연납신청을 놓친 분이라면 2기분(7월~12월)까지의 세액을 6월에 미리 납부하면 6개월간의 세액을 10% 할인받아 납부할 수 있다.

제1기분 자동차세의 납기일은 7월 1일이다. 납기일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에 자진 납부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리일보 제주 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용구 편집국장 김기현.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hl@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진정한 휴식의 보약 "페르카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한 번의 시비로 비료와 흙과 수분반응에 의한 농약성분 뿌리혹병, 잡초경감, 균핵병, 회색곰팡이병, 흑색썩음균핵병, 역병, 모잘룩병, 시들음병, 달팽이사멸, 각파귀, 날파리류, 곰팡이병살균, 방제. 페르카의 제반효과: 완효적 질소비 효과, 선충 밀도의 저하, 토양소독 효과, 유기물의 부숙 촉진, 식효효과, 토양공포미 살균 방제효과, 잡초의 경감, 가축의 기생충 방제, 토양의 비옥화, 토양 미생물 활성화.

고개속인 남성들을 위하여! 발기부전치료에 쓰이는 ※원터치자동약물주입기의 장점※ ▶ 사용 및 휴대가 매우 간편하고 원터치로 약물이 주입되어 통증 및 거부감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 기기에 쓰이는 치료약물은 고품질, 당도, 노화에 의한 발기부전 및 암, 수술 후 발생한 발기부전에도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 약물주입시 대부분의 남성들이 발기가 이루어져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할 수 있다. ▶ 발기부전클리닉 ▶ 조루약물주입법 ▶ 전립선클리닉 ▶ 남성성화성기질환 ▶ 요로결석 ※ 남성고민 상담 ※ 연세포르테비노기과월 064) 724-7575

서귀포시정 소식 2018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실시 □ 조사기간: 2019. 6. 25 ~ 7. 10 □ 조사기준일: 2018. 12. 31현재 □ 조사대상: 국내에 사업장이 있으면서 2018년 중 1개월 이상 조업 실적이 있고 2018년 12월말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 모든 사업체 □ 조사항목: 13개 항목 - 사업명, 소재지, 사업등록번호, 조직형태,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영업비용, 유형자산 등 □ 관련문의: 서귀포시 총무과 (☎ 760-2093) 서귀포시 동부도서관 인문학 강연 개최 알림 □ 일 시: 2019. 6. 29(토) 14:00 □ 장 소: 서귀포시청 별관 2층 문화강좌실 □ 주 제: 책으로 살다, 책으로 말하다 □ 강 사: 이상희 작가 □ 접수 및 문의: 서귀포시동부도서관 (☎ 760-3692~3698) 숨바천 영상문화축제 청소년 UCC 전국 공모전 □ 공모기간: 2019. 6. 3(월) ~ 7. 10(수) □ 공모대상: 전국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 □ 공모내용: 제주도를 주제로 하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스토리가 있는 영상 □ 공모방법: 이메일 (naya6750@hanmail.net)로 파일 업로드 □ 출품수: 1인(또는 1팀)당 1편 □ 출품규격: 3~5분 내외 / mp4 / 1280x720P □ 총상금: 140만원 상당 ※ 심사결과 발표: 2019. 7. 18(목) □ 문의사항: 서귀포시 서흥동행정복지센터 (☎ 760-4725) 서부보건소 6월 임신육아교실 운영 알림 □ 운영일시: 2019. 6. 24(월) 14:00~15:30 □ 운영장소: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2층 다목적실 □ 운영대상: 등록 임신부 및 출산가정, 영양플러스 대상자 선착순 20명 □ 운영내용: 산후유증예방강의 '꽃바구니 만들기', 보자보건사업 및 예방접종사업 안내, 영양플러스 사업 안내 등 □ 접수 및 문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모자보건실 (☎ 760-6274)